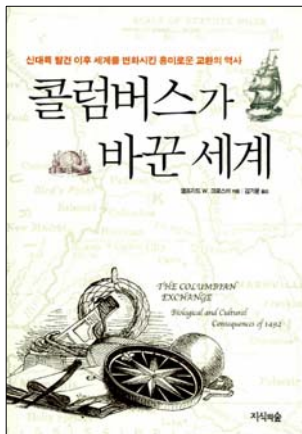




■ 크로스비의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이 성 훈



상대적으로 높은 문명을 지니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소수의 유럽인들에게 정복 당했는가? 300여 년 동안이나 식민통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던 이 질문들에 대한 크로스비의 설득력 있는 답변이 바로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The Columbian Exchange』이다. 그간 유럽인들이 가져온 말과 총의 공포, 케찰코아틀 신과 관련된 신화, 문명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인종주의의 안착 등 여러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크로스비는 생물학적이고 환경학적인 분석을 통해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손쉽게’ 정복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사람들과 처음 조우했던 장면은 『콜럼버스 항해록』에 잘 그려져 있다. 여기에 신대륙인들에게 “붉은 색 모자,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유리구슬, 값어치가 조금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제공하자, 그들이 다시 “앵무새, 무명실 타래, 투창 등”을 가지고 와서 유리구슬 같은 것과 교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이 아마도 최초의 ‘콜럼버스의 교환’일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환 과정에서 콜럼버스가 읽은 것은 그들이 “홀륭하고 노예로 적격”이었고, “그들이 쉽게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신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과, 그들에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복욕이 비대칭적으로 교환된 식민주의적 사건의 시작인 셈이다.

크로스비가 말하는 ‘콜럼버스의 교환’은 바로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두 세계간의 비대칭적인 생물학적 교환의 역사이다. 그가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소재는 바로 질병, 작물, 가축의 교환이다. 이 교환들이 각각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구세계의 질병과 가축들이 신대륙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으며,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신세계의 작물과 질병이 구세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그가 주목하고 있듯이 천연두가 몰고 온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역병은 단순히 제국의 구성원들만을 죽여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역병은 인디언 제국의 권력구조를 뒤흔들었고, 그 지도자들을 쓰러뜨렸으며, 그 지도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교란시켰다.”(108) 즉 아스텍과 잉카 문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에 의해 유입된 천연두야말로 스페인 정복자들의 가장 효과적인 원군이였다는 것이다. 테노치틀란에서 패배한 코르테스가 ‘슬픈 밤’(Noche Triste)이라는 전투에서 퇴각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아스텍 제국을 공격했을 때, 그를 도와준 것은 바로 천연두였다. 감염된 한 명의 흑인 노예로 부터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천연두는 이미 아스테카 제국을 총체적



천연두에 시달리는 아스테카인. 사아군(Sahagún)이 모사한 이 그림은 콜럼버스 교환의 비대칭성과 파괴적 성격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다.

으로 붕괴시키고 있었다. 잉카 제국의 경우에도 피사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천연두는 선발대 역할을 ‘홀륭하게’ 수행했다. 즉 크로스비가 말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정복자들의 승리는 많은 부분 천연두 바이러스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점령이라

기보다는 생물학적 사건”인 셈이다.

또한 유럽인들이 가져온 가축들로 인한 원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 역시 신세계 정복과 식민체제 지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소, 말, 돼지 등 유럽산 가축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농경체제는 붕괴된다. 목축의 대규모화와 야생화는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원주민 농지를 해체했고, 유목민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통적 농경 구조의 해체는 정복자들의 식민 지배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크로스비의 저서는 신대륙 정복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메리카를 바꾼 것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이나 기술이 아니라, 질병이었다는 것이다. 크로스비는 신대륙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 구대륙에 나타난 영향도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기원의 불확실성 또한 인정하고는 있지만,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건너가 유럽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매독과 신대륙산 작물이 유럽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한다.

그러나 그가 서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매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교환에 대한 기계적인 균형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반성이 아마도 교환의 비대칭적 성격과 파괴적 속성을 강조한 『생태 제국주의』(1993)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크로스비가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생태 제국주의는 “유럽의 팽창을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생태계 사이의 만남과 경합”으로 설명한다. 생태계간의 경합을 통해 훨씬 생명력이 강한 구세계의 잡초, 병원균, 동물, 미생물들이 신대륙이나 ‘네오 유럽’의 토착종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생태적 팽창의 마지막에 도착하여 식민화 과정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크로스비는 유럽인들이 최근 몇 세기 동안 대부분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배경으로 “일관되게 비대칭적인 생물학적 교환의 영향”을 들고 있는 것이다.

2003년 판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2년 이 책이 처음 쓰였을 당시에는 출판해줄 출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삼십년 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무관심했고, 많은 출판인들은 이를 무시했으며, 일부 서평은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아이디어들은 현대사의 논의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개념이 주류 역사학의 중요한 레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다. 마야 문명의 붕괴를 환경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크로스비의 지적 자장 내에 있다.